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코리아 설교 18회

18. 예수님의 기별-천국(8.21.10. 18회)

2010년 8월 21일(안식일 아침)

[마4: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序;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으로 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은 환경에서 그들의 생활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처럼 걸어 다니셨고 그들처럼 떡과 마시며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시면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전파한 기별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전파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비로소 전파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기별이었습니다. 이 기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에 대하여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1. 천국이라는 말

오늘날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지상천국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것을 보면 어린이 천국,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아무 거리끼는 것이 없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고 싶은 것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 놓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범죄천국, 마약천국이라는 표현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지나친 것이기도 하고 잘못된 표현이기도 한데, 천국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천국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성경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가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친 기별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기 전에 침례요한도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에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외친 기별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선포였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요. 신약성경은 처음부터 천국을 선포합니다.

침례요한이 선포했고, 곧 이어 예수께서 선포했으며,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10:7]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런데 애청자 여러분은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아주 많이 나오는 것 같이 생각되지요. 또 이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애청자들께서는 그런데 별 관심 없이 성경을 읽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어떤 애청자들은 조금 놀랄지도 모르겠네요. 성경 여러 곳에 그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이 생각하신 분들은 이외의 사실에 놀랄 수도 있겠지요. 아마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 중에는 저의 이 말이

틀렸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역한글판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4:18에 천국이라는 말이 한 번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역한글판 성경에는 마태복음 외에 딤후4:18에 딱 한 번 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37번 천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모두 38번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역한글판 성경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37번 중에 정말 천국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은 32번입니다. 나머지 다섯 번은 “나라”라고 번역해도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32번은 반드시 천국이라고 번역하거나 하늘의 왕국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딤후4:18의 천국도 사실은 마태복음의 5번과 같이 나라라고 번역해도 되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에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했는데, 그 나라라는 말과 천국이라고 5번 번역된 말과 딤후4:18의 말은 똑 같은 말입니다. 신약 원어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헬라말로 왕을 “바실류스”라고 하는데, 바실레이아는 바실류스가 다스리는 나라를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Kingdom이지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32번 천국이라고 번역된 말은 “헤 바실레이아 톤 우리논”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 왕국 그 하늘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이 되도 록하면 그 하늘의 그 왕국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늘왕국이며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 헤 바실레이아 톤 우리논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외에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외의 신약성경에는 마태가 천국이라고 한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헤 바실레이아 투 테우”입니다. 마태가 말하는 헤 바실레이아 톤 우리논과 다른 데서 말하는 헤 바실레이아 투 테우가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는 이것이 같은 사실을 말하는 것인 줄 알도록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마19:23,24]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 말씀에서 23절에 천국은 바로 2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천국과 그 외의 신약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똑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마태만 천국이라고 쓰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읽을 유대인들의 기호를 생각하였습니다. 진리와 충돌하지 않는다면 굳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 “엘로힘”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았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대신에 “샤마임”을 사용하였습니다. 샤마임을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샤마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엘로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대신하여 사용한 말이 아도나인데 그것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것처럼 엘로힘이라는 말은 거룩하고 존귀한 말이니까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았고, 대신 하늘이라는 뜻이 샤마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마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대용으로 사용하는 샤마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말은 전적으로 똑 같은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태복음에만 하늘나라 곧 천국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 천국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많은 교인들이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생각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가 분명히 설명한대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있는 위치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치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만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에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예를 들면,

[살전4: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살전5:16~18]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롬2:18]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마7:21~23]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런 사실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예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듭남에 대하여 증거할 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곧 영생의 생명을 얻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주셨습니다.

[요6: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생하는 존재들만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천국을 전파하신 것은 곧 영생의 생명을 전파하신 것이나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요3:3~5)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남의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지요.

[벧전1:3]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는 것의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이 말씀이 분명히 밝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했지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천국은 거듭나야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드러난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거듭남으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임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에 대한 말씀도 있지요. 주기도문에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또한 요3:5은 거듭나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하는 천국과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3. 임하는 천국, 들어가는 천국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이 천국은 분명히 하늘에 있는 천국은 아니지요. 이 천국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천국입니다.

[고후6:1,2]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베푸는 동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동안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은혜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히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에는 은혜의 왕이 좌정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입니다.(요1:14,17)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분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의 핵심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은혜의 천국, 곧 은혜의 나라에서는 은혜를 받아 생활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영적 필요를 공급 받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침례 요한이 외친 가까이 온 천국은 은혜의 천국의 도래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1:25~34]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26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27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메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28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벳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침례요한보다 조금 뒤에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천국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천국이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비유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마치 …과 같으니”라는 비유가 여러 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하신 비유이지요. 그 비유 중에는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의 이야기도 있고, 겨자씨 비유도 있고,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 비유도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시작할 예수께서는 “천국은 마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들이 천국의 어떤 면들을 보여주는 비유라는 뜻이지요. 그 중에는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비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밭은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마13:38) 그러므로 밭에 감춰진 보화는 세상에 감춰져 있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이 세상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지요. 이 세상에서 시작되고 세상에 발전하는 천국이 바로 은혜의 천국입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이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면 나무가 됩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담배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나무가 되는 씨로써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이지요. 은혜의 천국은 그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발전하여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성장합니다. 또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은 은혜의 천국의 감화력을 나타냅니다. 이 천국은 세상을 감화하여 누룩이 가루를 변화시키듯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천국을 사려고 합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겠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까?

[사53:1~3]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고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은혜의 천국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물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 사실이 있습니다. [눅17:20,21]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임한다는 말이나,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라고 한 말이나 같은 단어 “엘코마이”입니다.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고 하신 주님이 그 천국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안”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 장면을 잘 생각하시면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묻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말이 아니지요. 결코 아닙니다. 여기 “너희 안”이라고 번역된 말은 “엔토스”입니다. 이 말은 “가운데, 중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천국이 언제 임하느냐고 묻는 이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천국은 먼저 사람 자체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 자체가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곧 사람의 인격이 천국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격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그 인격이 천국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천국이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계1:5,6]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5:9,10]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말씀들은 다 예수께서 피로 산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라라는 말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게 한 같은 말입니다.

[벧전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예수를 믿음으로 어두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격 천국 자체이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인격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한 천국 곧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격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는 천국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이 나라를 인격 천국을 이룬 사람들에게 상속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셨습니까? 너무 가난하여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가족이, 너무도 좋은 환경 너무도 좋은 대우 그런 곳에 공짜로 이사를 가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 바로 옆집에 원수가 이사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옆집에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환경, 좋은 대우가 천국이 될까요? 화해하면 되겠지

요. 화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대우라도 사람이 변해서 사랑과 친밀함으로 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천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 그것을 성경은 영광의 천국으로 나타냅니다. 은혜의 보좌가 있으니 은혜의 왕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영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마25:31~33]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33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이 말씀은 인자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은혜의 왕국 백성이 은혜의 천국 백성으로서 바르게 생활했는지 한 번 살펴보는 광경이지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면서 은혜의 천국 백성으로 올바르게 생활한 사람들은 다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4. 회개해야 들어가는 나라

은혜의 천국이나 영광의 천국의 백성이 되는 데는 인격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관문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면서 곧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인격 천국이 되는 입구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먼저 사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연결을 가질 때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사상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없이 살아온 사실이 죄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행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 것도 죄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행한 모든 도덕적 선이나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입니다. 그것이 왜 죄인지는 시간관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유감입니다. 혹시 다음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하는 선행이나 의로운 일들은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썩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부제를 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방부제를 치고 방취제를 쳐도 그것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도덕적 행실이 탁월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할 필요가 무엇이겠느냐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소위 요즘 말하는 다윈주의가 바로 그런 사상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다 회개해야 할 사상들입니다.

사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은 생명이 달라질 때 가능하지요. 거듭나는 것은 바로 생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생명이 예수 안에서 영생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 천국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롬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는 은혜의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은혜의 천국 백성, 계시록이 가르치는 대로 구원받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고 올바르게 새 생명으로 생활할 때 영광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이 세상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은혜의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재림하십니다. 그날 애청자 여러분과 제가 다 영광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거듭난 생명으로 성령의 주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여 은혜의 천국으로 사시는 일에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의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가 되고 은혜의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하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께서 은혜의 천국 백성들을 영광의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실 때 우리가 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로 하나님과 올바른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기는 삶을 살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고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설교자에게는 760-329-3846이나, 626-590-5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